

《說文解字注》의 文字學 이론 考察*

- 《說文解字·敘》의 段玉裁 注를 위주로

오제중**

◁ 목 차 ▷

- I. 緒論
 - II. 漢字의 기원과 文字의 개념
 - III. 形音義 관계와 字形의 수록
 - IV. 部首의 체제
 - V. 六書論
 - VI. 結論
-

I. 緒論

東漢 시대 許慎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字書인 《說文解字》¹⁾의 등장 이래 이에 관한 무수히 많은 연구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출처 문물을 이용한 古文字學의 발달로 《說文》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역대 《說文》 연구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들은 소위 청대 說文四大家라 불리는 段玉裁, 王筠, 朱駿聲, 桂馥 등이다. 특히 段玉裁는 평생의 역작인 《說文解字注》²⁾를 통해 가장 수준 높은 說文學 연구 성과를 이룩한 학자로 지금까지 칭송되고 있다. 段玉裁(1735-1815)는 청대의 대표적 학자인 戴震의 제자로 전통 小學인 文字學, 聲韻學, 訓詁學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본격적으로 《說文》에 주를 달기에 앞서 乾隆 41년 《說文解字讀》³⁾을 편찬하기 시작했으며 후에 이를 바탕으로 嘉

* 이 논문은 2012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하 모두 《說文》으로 줄여 적는다.

2) 이하 모두 《說文注》 혹은 段注로 줄여 적는다.

3) 盧文弨 《說文解字讀序》四. 「《說文》이 편찬된 이래로 이 저서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

慶 12년 드디어 《說文注》를 완성하였다.⁴⁾ 《說文注》의 文字學 성과는 《說文》의 교감을 비롯하여 許慎의 문자학 이론과 글자 풀이에 대한 상세한 보충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許慎 字書의 편찬 목적이 小篆을 통한 문자의 本義를 밝히는 것이라면 段玉裁는 字形을 비롯한 字音과 字義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업적을 이뤘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漢代 이래 유지되어 온 許慎과 戴震의 儒家의 전통을 이어받아 전통 小學과 經學을 하나로 엮어 연구하였다.⁵⁾

字書라는 《說文》의 특성상 실제 개별 문자의 形音義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본문이지만 許慎의 문자학 이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가 직접 작성한 敍文이다. 과거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敍文 혹은 跋文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저작 이념과 창작 동기 그리고 학술적 관점 등을 밝히곤 했다. 더욱이 《說文》에는 凡例와 같은 體例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敍文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문자의 기원은 물론 후대에 이미 널리 알려진 部首와 六書論 그리고 각종 字形의 변천에 이르기까지 문자학적 관점에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이론들이 대부분 담겨있다. 따라서 기존 許慎의 문자학 이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說文·敍》를 대상으로 그의 文字觀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주었다. 한편 段玉裁는 許慎의

었다. ……여러 사람의 잘못을 경계할 수 있었으며 후학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진정으로 성인의 정명의 요지를 넓히는 것으로 경서 훈석에 도움이 되는 공로가 더욱 크다. (蓋自有《說文》以來，未有善於此書者。……可以砭諸家之失，可以解後學之疑。斯眞能推廣聖人正名之旨，而其有益於經訓者功尤大也。)(《說文解字注》，天工書局 수록.)

- 4) 江沅《說文解字注·後序》一. 「내가 보기에 세상에 허신의 학문으로 이름난 학자들은 여럿 있으나 그들의 성취를 살펴보면 단옥재를 넘어서는 이가 없다. 허신 저서의 체례 및 저서의 편찬 요지는 모두 단옥재가 지은 주문 속에 상세히 담겨있다. 그래서 단옥재 역시 허신의 본심 열 개 가운데 여덟은 스스로 얻었다고 자신했다. ……이 책을 들어 밝히니 허신 저서의 본심이 밝아지고, 경서와 역사서 그리고 제자백가의 문자 역시 이로부터 밝아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沅謂世之名許氏之學者夥矣，究其所得，未有過於先生者也。許氏箸書之例以及所以作書之指，皆詳於先生所爲注中，先生亦自信以爲於許氏之志什得其八矣。……縣是書以爲的，而許氏箸書之心以明，經史百家之文字亦無不由此以明。)(《說文解字注》，天工書局 수록.)
- 5) 陳煥《說文解字注跋》二. 「선생(단옥재)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과거에 스승인 대진께서는 ‘나의 학문은 문자로 경문을 고증하고, 경문으로 문자를 고증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리하여 내가《설문》에 주를 다는 것은 이 두 마디 말을 취한 것일 따름이다. (聞諸先生曰，昔東原師之言，《僕之學不外以字攷經，以經攷字》，余之注《說文解字》也。蓋竊取此二語而已。)(《說文解字注》，天工書局 수록.)

관념을 계승 발전하여 《說文》에 상세한 注釋을 더함으로써 《說文》의 학술적 가치 제고에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자학 이론 역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說文注》의 내용을 통해 段玉裁의 문자학 이론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다만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說文注》의 분량은 너무나 방대하고 또한 다루고 있는 학술적 내용 또한 적지 않아 본고에서는 《說文注》의 문자학 이론 범위를 《說文·敘》에 대한 注文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說文學 연구에서 《說文·敘》에 대한 인용과 해석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段注의 인용과 해석은 단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段注의 학술적 내용 파악은 물론 국문 해석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연구 방법으로는 일차자료인 《說文·敘》에 대한 段注를 살펴보는 것으로 과거 주로 단편적으로 인용되었던 注文의 내용을 비교적 풍부한 편폭에 걸쳐 자세히 考釋하고 그 속에 담긴 段玉裁의 문자학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說文注》에 담겨 있는 段玉裁의 문자학 이론을 고찰하여 許慎의 학문 세계의 발전적 계승은 물론 그 차이점 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로써 清代 說文學 연구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공과를 논하고자 함이 본고의 최종 연구 목적이다.

II. 漢字의 기원과 文字의 개념

漢字의 기원에 관해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倉頡 造字說은 물론 結繩說, 八卦說, 書契說 등 다양한 전설이 존재한다. 許慎 역시 《說文·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자가 만들어 지는 단계에 대해 언급하였다.⁶⁾ 이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문자 생성의 순서는 八卦를 시작으로 結繩을 거쳐 倉頡의 書契로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자의 생성 과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6) 許慎《說文》，卷十五上，一。「옛날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이로써 주역의 팔괘를 만들었다. (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於是始作易八卦.), 「신농씨에 이르러서는 결승으로 다스림을 삼아 실무를 통괄하였으나 업무가 번잡해지고 꾸밈과 거짓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황제의 사관이었던 창힐이처음으로 서계를 만들었다. (及神農氏, 結繩爲治, 而統其事. 庶業其繁, 飾僞萌生. 黃帝之史官倉頡,初造書契.)」

로 여긴 것은 적어도 荀子が 제시한 約定俗成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타당한 것이다. 다만 문자의 기원을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結繩이나 八卦와 같은 전설과 결부시킨 것과, 倉頡이라는 한 사람에게 문자 창제의 공을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段注는 許慎의 한자 기원에 관한 설명을 좀 더 합리적인 관점으로 계승 발전시켜 문자의 창제와 그 시기의 선후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 먼저 새끼매듭이 한자의 기원이라는 結繩說은 《周易》⁷⁾에 처음 등장하며 《老子》⁸⁾와 《莊子》⁹⁾에 이어서 《說文·紱》에까지 이른다. 이에 관한 段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희씨 이전부터 그리고 복희씨와 신농씨 모두 새끼매듭을 엮어 다스리고 일에 계통을 세웠다. ……〈계사전〉에 이르기를 「상고시대에는 새끼매듭을 지어 다스렸다」 하였으니 신농씨 이전은 모두 이러하였다. 「후대의 성인은 그것을 서계로 바꾸었다」 한 것은 황제를 말함이다. 《효경》위서 《수신계》에 따르면 「삼황시기에는 문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오제 이후에 비로소 문자가 있음이다. (謂自庖犧以前及庖犧及神農皆結繩爲治而統其事也. ……則《傳》云「上古結繩而治」者, 神農以前皆是, 云「後世聖人易之以書契」者, 謂黃帝. 《孝經》緯《授神契》云, 「三皇無文」. 是五帝以下始有文字.)¹⁰⁾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許慎이 인용한 바와 동일하게 結繩이나 書契의 예를 들어 문자 탄생의 점진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八卦나 結繩과 같은 것은 아직 문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¹¹⁾ 다음으로 한자의 기원을 논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倉頡이 당시 실제 존재하였던 인물인지 여부는 지금까지도 확정할 수 없다.¹²⁾ 그러나 段玉裁는 倉頡이 실존 했다는 전제 하에 六

7) 《周易·繫辭傳》下.

8) 《老子》八十章.

9) 《莊子·胠篋》

10)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一.

11)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一. 「복희씨가 팔괘를 만든 것이 비록 문자의 시초이기는 하지만 팔괘는 아직 문자는 아니다. (庖犧作八卦, 雖卽文字之肇端, 但八卦尙非文字.)」 즉 段注의 사상은 팔괘와 같은 것은 문자 형성의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바로 문자로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12)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一. 「高誘의 《呂覽》주에서 이르기를 창힐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자를 알았으며 새의 발자국을 따라 그려 문자의 필획을 완성했다고 하였다. (高誘注《呂覽》曰, 《蒼頡生而知書, 寫倣鳥跡以造文章.》)」 倉頡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

書 중에 指事와 象形에 해당하는 비교적 초기의 문자를 만들었을 것이며, 설사 그렇다 해도 모든 古文을 혼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추론을 하였다.¹³⁾ 이처럼 八卦나 結繩 그리고 書契 등을 문자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문자의 이전 단계로 여기지 않으며, 또한 문자의 一人 창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段注의 내용은 許慎에 비해 확실히 선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文字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書寫的 개념인 文字에 대해 許慎은 일찍이 《說文·敘》에서 文과 字의 개념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¹⁴⁾ 文字가 생성되던 초기에는 그림과 같은 상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文이라 하였으며 이후 形聲 등의 造字 방식이 출현하여 문자가 파생됨에 따라 字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段玉裁는 이러한 許慎의 관점을 계승하여 文字의 정의와 작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먼저 文에 대한 段注의 내용을 살펴보면 許慎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許慎의 견해와는 차별되는 문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자의 각기 다른 명칭인 名, 文, 字 그리고 文字의 개념을 하나로 모아 命名의 정의 및 상호 연관성에 대해 더욱 명확히 설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발음은 객관적 사

에서 발견되며 일부에서는 심지어 신경화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는 문자의 창제라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새의 발자국을 모방하여 문자를 만들었다는 내용 역시 한자의 창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 13)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二，三。「창힐이 만든 것은 지사와 상형의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倉頡有指事象形二者而已.)」, 「문자의 자형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 하나뿐이 아니어서 날날이 들어 열거할 수 없다. 세상에 전해져 내려오기를 창힐이 고문을 만들었다 하나, 이 모든 것을 창힐이 만든 것은 아니다. (文字之體，更改非一，不可枚舉。傳於世者概謂之倉頡古文，不皆倉頡所作也.)」 현재 倉頡造字說에 대한 학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倉頡이 설사 실존 인물이라 해도 段注의 설명과 같이 혼자 모든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일부 문자의 정리와 造字에 관여했을 것이라 결론 내리고 있다.
- 14) 許慎《說文》，卷十五上，二。「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사물의 종류에 따라 외형을 그렸으니 이것을 文이라 하며 이후 형부와 성부가 서로 더해지니 이를 字라고 한다. 文은 사물 형태의 근본이며 字는 여기서 파생되어 수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倉頡之初作書，蓋依類象形，故謂之文。其後形聲相益，即謂之字。文者物象之本，字者言孳乳而寢多也.)」
- 15)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二。「文이라는 것은 쉼어 그리는 것이다. 그림을 쉼어 그려 사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文者，造畫也，遂造其畫而物像在是.)」

물의 명칭을 반영하므로 名이며, 자형은 객관적 사물의 형상을 묘사하므로 文이며, 문자는 이러한 文이 증가하여 번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字인 것이다. 그리고 '析言'의 개념으로는 獨體字와 合體字의 관계로 '獨體爲文, 合體爲字'가 되어 결국 文은 字의 기초가 되는 셈이다. 반면 '統言'인 文字는 文과 字가 합쳐진 개념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 개념의 文字와 유사한 것으로 여겼다.

《주례·외사》, 《예경·빙례》, 《논어·자로편》에서는 모두 名이라 말하고, 《좌전》의 「反正爲乏」, 「止戈爲武」, 「皿蟲爲蠱」는 모두 文이라 하였다. 육경에서는 字라고 말한 것이 없었으며 진각석에 들어있는 「同書文字」가 처음으로 文字라 말한 것이다. 정현의 주례와 의례, 《논어》 주에서 모두 말하기를 「과거에는 名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字라 한다」고 하였다. 名은 그 자체가 발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文은 그 자체가 형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字는 그 자체가 증가하여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말하면 독체자는 文이며 합체자는 字이다. 이를 총괄하여 말하면 文과 字라 서로 부를 수 있다. 《좌전》의 止戈와 皿虫 모두 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합체자가 文이 된 것이다. 허신이 어떤 부수에서 약간의 文이라 한 것은 소전을 말하는 것이며, 약간의 字라고 한 것은 해설을 말함이다. 따라서 고문과 전문 모두를 文이라 하며 이미 겸손하게 말하기를 字라고도 하는 것이다. 《周禮·外史》, 《禮經·聘禮》, 《論語·子路篇》皆言名, 《左傳》「反正爲乏」, 「止戈爲武」, 「皿蟲爲蠱」皆言文, 六經未有言字者, 秦刻石「同書文字」, 此言字之始也. 鄭注二禮, 《論語》皆云, 「古曰名, 今曰字」按名者自其有音言之, 文者自其有形言之, 字者自其滋生言之. ……按析言之, 獨體曰文, 合體曰字. 統言之, 則文字可互稱. 《左傳》止戈, 皿虫皆曰文, 是合體爲文也. 許君某部言文若干, 謂篆文. 言凡若干字, 謂說解語. 是則古篆通謂之文, 已語則謙言字也.)¹⁶⁾

앞서 살핀 文과 字에 관한 許慎의 풀이에 따르면 '依類象形'과 '形聲相益'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文과 字를 각기 象形과 形聲으로만 국한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실제 《說文》에서는 段注의 설명과 같이 文과 字의 개념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段玉裁는 이를 '析言'과 '統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좁은 의미로는 文과 字의 개념은 여전히 구분되나 보다 넓은 개념의 범주로 본다면 서로 互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段注에서는 文과 字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廣義의 개념으로 분석하면서 다른 한

16)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二.

편으로 그 狹義의 차이점을 언급한 것이다. 즉 좁은 의미로는 名, 文, 字의 개념이 서로 구분되나 넓은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 《說文》의 문자 운용 과정에서 文과 字는 앞서 許慎이 말한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와 같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Ⅲ. 形音義 관계와 字形의 수록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字形, 字音, 字義이다. 바꿔 말하면 한자는 形音義의 집합체이며 이는 바로 한자의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許慎 역시 이러한 점을 이미 인지하여 비록 字形을 위주로 수록하고 있는 《說文》에서도 字義의 하나인 本義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形聲 등을 통해 字音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說文》¹⁷⁾에 관한 段注의 내용이다.

자의, 자형, 자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도리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昭는 밝히는 것이요, 諭는 알린다는 것이다. 허신의 자서는 자형을 위주로 하여 이를 풀이하고 있다. 그 소전이 바로 자형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그 풀이는 먼저 자의를 해석하는 것으로 元을 '시작하는 것', 丩를 '크다'고 풀이한 것이 바로 그러하다. 다음은 자형을 해석하는 것으로 元을 '一과 丩로 이루어져 있다', 丩를 '一과 丩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다음은 자음을 말하는 것으로 丩과 丩이 성부가 되는 것과 독약법이 모두 그러하다. 반드시 먼저 자의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후에 자형이 있기 때문이다. 자형 뒤의 자음은 자형을 살피면 자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자형이 곧 자음이다. 이러한 자형, 자음, 자의의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소전이 완성되니 자의를 설명해야 전주와 가차가 분명해지며, 자형을 설명해야 지사, 상형, 형성, 회의가 분명해지며, 자음을 설명해야 형성과 가차가 더욱 분명해 진다. 하나의 문자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겸하고 있으니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서로 구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문자는 이러한 세 가

17) 許慎 《說文》, 卷十五上, 二十三. 「만물이 다 보여 실리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뜻을 밝혀 알 수 없는 것은 비유로써 설명하였다. (萬物咸覩, 靡不兼載. 厥誼不昭, 爰明以諭.)」

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문자는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서로 엮갈려 구하는 것이다.(誼兼字義, 字形, 字音而言. 昭, 明也. 諭, 告也. 許君之書主就形而爲之說解. 其篆文則形也. 其說解則先釋其義, 若元下云始也, 丕下云大也, 是也. 次釋其形, 若元下云從一從兀, 丕下云從一從不, 是也. 次說其音, 若兀爲聲, 不爲聲, 及凡讀若某, 皆是也. 必先說義者, 有義而後有形也. 音後於形者, 審形乃可知音, 卽形卽音也. 合三者以完一篆, 說其義而轉注, 假借明矣, 說其形而指事, 象形, 形聲, 會意明矣, 說其音而形聲, 假借愈明矣. 一字必兼三者, 三者必互相求. 萬字皆兼三者, 萬字必以三者彼此逖遺互求.)¹⁸⁾

이처럼 段玉裁는 許慎의 ‘一字必兼三者’의 인식을 더욱 발전시켜 ‘三者必互相求’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즉 形音義에 해당하는 영역을 각각 독립적으로 해설했던 許慎과 달리 段注는 한자를 形音義의 집합체라는 전제 아래 상호 비교하여 문자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許慎을 비롯한 이전 학자들의 문자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또한 段注에서는 字形, 字音, 字義의 개념 순서에 대해 실제 문자의 탄생 과정과 후에 이를 분석하는 순서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허신은 발음은 의미에서 생기며, 이러한 의미는 자형에 붙어있는 것으로 여겼다. 성인이 문자를 만들 때 의미가 있으므로 발음이 있고, 발음이 있으므로 형태가 있는 것이다. 학자들이 문자를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자형을 살핌으로써 발음을 알게 되고, 발음을 살핌으로써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許君以爲音生於義, 義箸於形. 聖人之造字, 有義以有音, 有音以有形. 學者之識字, 必審形以知音, 審音以知義.)¹⁹⁾

段注에서 언급하고 있는 「有義以有音, 有音以有形」에서 의미는 곧 객관 사물이며, 발음은 언어이고, 형태는 문자의 자형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객관 사물은 경우에 따라 주관적 관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문자가 처음 만들어지는 순서는 字義와 字音を 거쳐 마지막으로 字形이 만들어지는 반면, 학자들이 문자를 인식하는 것은 역으로 字形으로부터 비롯되어 字音 그리고 字義의 순서라고 여겼다. 결국 문자의 字形은 字音과 字義의 전제 하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발음

18)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二十三。

19)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二十二。

과 의미의 결합은 결국 언어, 여기서 더 나아가 문자 탄생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현대적인 언어학 개념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물을 반영하는 언어와 이러한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인 문자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字義 중 本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허신은 자형을 위주로 자형에 기인하여 자음과 자의를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자의가 다른 자서들과 절대로 같지 않은 것은 다른 책에는 가차가 많아 다수의 글자가 본의가 아니다. 그러나 허신은 문자의 본의만을 말해 어떤 것이 본의인지를 알면 다른 어떤 것이 가차인지를 알 수 있었다. 즉 본의는 가차를 가늠하는 저울과 같은 것이다.(謂許以形爲主, 因形以說音, 說義. 其所說義與他書絕不同者, 他書多假借, 則字多非本義. 許惟就字說其本義, 知何者爲本義, 乃知何者爲假借. 則本義乃假借之權衡也.)²⁰⁾

이처럼 段玉裁는 문자의 구성은 形音義의 긴밀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이를 바탕으로 문자 해석에는 선후 순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글자 풀이에 있어서는 字形을 위주로 나머지 字音과 字義를 분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字義의 경우는 本義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적고 있다.

다음은 字形 수록에 관한 段注의 내용으로 《說文》의 표제자인 小篆 이외에 古文이나 籀文과 같은 重文의 관계에 대한 段玉裁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의 기본적인 자형 수록 체제는 「전문으로 펼쳐 늘어놓고 고문과 주문으로 참조하였다(今敘篆文, 合以古籀.)」이다.²¹⁾ 段玉裁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적고 있다.

전문은 소전이고 고주문은 고문과 주문을 말한다. 허신이 옛 것을 중히 여기나 그 체제로 고문과 주문을 앞세우지 않은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로부터 옛 것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소전은 고문과 주문으로 인해 변하지 않은 것이 많아 소전을 앞세워 고문과 주문을 설명하고자 했다. 예서는 고문과 주문으로부터 시기가 멀리 떨어져 근원을 찾기 어려워 반드시 소전을 먼저 앞세웠다. 소전은 이미 고문과 주

20)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下，七。

21) 許慎《說文》，卷十五上，二十一。

문을 고친 것이라 고문과 주문은 소전과는 다르다. 따라서 소전 뒤에 고문과 주문을 더하고 '고문의 자형은 무엇이고', '주문의 자형은 무엇이라' 말하니 이는 자서 전체에 통용되는 체례이다. 한편 변형적인 체례로는 먼저 고문과 주문 뒤에 소전을 배열한 것과 ……., 고문을 먼저 배열한 뒤에 소전을 배열한 것이 있다 …… . 본 자서에서 고문과 주문을 배열한 후에 소전을 배열한 것은 모두 부수에 따른 연유이다. (篆文謂小篆也, 古籀謂古文, 籀文也. 許重復古而其體例不先古文, 籀文者, 欲人由近古以攷古也. 小篆因古籀而不變者多, 故先篆文, 正所以說古籀也. 隸書則去古籀遠, 難以推尋, 故必先小篆也. 其有小篆已改古籀, 古籀異於小篆者, 則以古籀駢小篆之後, 曰古文作某, 籀文作某, 此全書之通例也. 其變例則先古籀後小篆, …… . 先古文而後篆文者, …… . 凡全書有先古籀後小篆者, 皆由部首之故也.)²²⁾

문자 발전의 단계는 흔히 小篆 이전의 古文字 단계와 隸書 이후의 近代文字 단계로 구분된다. 段注에 따르면 小篆을 《說文》의 표제자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고문자에서 근대문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한 문자이므로 이를 통해 古文이나 籀文과 같은 이전의 문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고문자와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진 隸書 이후의 문자 파악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重文 수록의 通例와 變例를 예로 들어 部首의 체례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 하게 古文과 籀文이 표제자가 된 字例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³⁾ 이처럼 許慎의 자형 수록 체례에 대해 상세한 주석을 더 함으로 《說文》의 표제자인 小篆과 重文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이어서 大篆과 小篆의 관계에 대한 許慎의 견해 「모두 사주의 대전을 취하여 혹은 생략하고 고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소전이다 (皆取史籀大篆, 或頗省改, 所謂小篆者也.)」²⁴⁾에 대해 상세히 注釋을 달았다.

대전은 이미 고문을 고친 것이고, 소전은 다시 고문과 대전을 고친 것이다. 혹은 그것을 일러 생략하고 고치기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고치지 않은 것이 많

22)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二十一.

23) 上の 小篆은 丄이고 古文은 二이다. 《說文》에서 표제자로 小篆을 사용하지 않고 重文 자형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는 바로 部首字인 上과 下이다. 이는 上部에 속하는 글자들이 𠂔와 𠂔처럼 古文 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小篆 丄을 표제자로 세우지 않은 것이다. 許慎《說文》, 卷一上, 二, 三.

24) 許慎《說文》, 卷十五上, 十.

으니 허신이 열거한 소전은 반드시 고문이나 대전과 견줄 수 있다. ‘고문 무엇이다’, ‘주문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고문과 주문이 소전과 같은 것이고 이미 소전이 있음에도 ‘고문 무엇이다’, ‘주문 무엇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혹은 생략하고 고친 것이다. (大篆既或改古文, 小篆復或改古文大篆, 或之云者, 不盡省改也. 不改者多, 則許所列小篆固皆古文大篆. 其不云古文作某, 籀文作某者, 古籀同小篆也. 其既出小篆又云古文作某, 籀文作某者, 則所謂或頗省改者也.)²⁵⁾

이는 許慎이 말한 ‘或頗省改’라는 것이 모든 小篆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古文과 籀文이 重文으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따라서 重文이 없는 경우에는 小篆과 자형이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或頗省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비교적 합리적 시각으로 小篆과 重文의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許慎의 重文 수록 體例가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大篆을 古文을 고친 것으로 여긴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시각이다.

소전은 이미 고문과 대전을 생략하여 고친 것이고, 또한 예서는 소전을 생략한 것이다. 진대에는 예서와 소전 이 두 가지 서체가 모두 통행되어 고문과 대전은 마침내 통행되지 않게 되었다. ……고문과 대전이 통행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자형은 여전히 존재하여 각부와 조충서 등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小篆既省改古文大篆, 隸書又爲小篆之省. 秦時二書兼行, 而古文大篆遂不行. ……古文大篆遂不行而其體固在, 刻符蟲書等未嘗不用之也.)²⁶⁾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段玉裁의 사상은 문자의 변천은 주로 복잡한 것에서 간략한 것으로 변화한다는 대전제 아래 전후의 연속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형의 탄생과 기존 자형의 도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일정 기간 병행되어 사용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형의 변천에 대해 아쉬운 것은 古文字 자료에 관해 段玉裁는 시대 배경의 제한으로 인해 甲骨文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金文 역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 제약으로 인해 漢字의 변천 과정에 대해 일부 오류를 범하여 《說文》에 수록

25)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十.

26)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十一.

된 古文을 大篆 이전의 문자로 오해하여 商周 시대 청동기의 銘文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²⁷⁾

IV. 部首의 체제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許慎이 《說文》을 통해 의도했던 것은 小篆 자형을 통해 문자의 形音義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許慎은 540개의 部首를 세워 《說文》에 수록된 문자를 총괄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문자의 形音義를 각각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段注에서는 《說文》의 「부수를 나누어 세우고 글자를 배열하여 서로 혼란스럽게 섞이게 하지 않았다(分別部居, 不相雜廁.)」²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부수를 나누어 세우고 글자를 배열하여 서로 혼란스럽게 섞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540개의 부수로 나누었음을 말한다. 주대의 자서 중 한대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주》 십오 편으로 그 체제는 대략 후대의 《삼창》과 같다. ……그 체제는 모두 필요한 글자를 어지럽게 취하여 문리로써 운이 있는 구절을 편성하여 후세의 《천자문》과 다를 바 없으니 이는 혼란스럽게 섞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글자를 이는 이가 그 문자를 조금 알아도 자형이 혹시 변형되어 있으면 그 글자의 발음과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비록 양웅의 《창힐훈찬》, 두림의 《창힐훈찬》, 《창힐고》에서 따로 풀이를 하고 글자에 따라 설명을 하여도 자형의 근원과 자음과 자의의 그러한 연유를 알지 못한다. 허신은 발음은 의미에서 생기고, 의미는 자형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여겼다. 성인이 문자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음으로써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음으로써 자형이 있게 된 것이다. 배우는 이들이 문자를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자형을 살핌으로써 발음을 알고, 발음을 살핌으로써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실로 상형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모든 글자를 합하여 540개의 부수로 분별하였다. 매 부마다 하나의 머리를 세우고 같은 부수에 속하는 것은 「무릇 어떤 부수에 속하는 것은 모두 어떤 자형을 따른다」

27) 오제중 〈清代的《說文解字》古文 연구에 관한 考察〉, 293-296쪽. 古文에 관한 段玉裁의 이와 같은 착오는 許慎의 文字觀을 존중해 《說文·敍》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며 실제 古文은 戰國시기에 통용되던 문자이다.

28) 許慎《說文》, 卷十五上, 二十二.

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형이 세워지니 발음과 의미가 쉽게 분명해졌다. 무릇 모든 문자는 반드시 그 것이 속한 부수가 있으니 540개의 문자로 천하고금의 모든 문자를 통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서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허신의 독창적인 것이다. 그물은 여러 가닥의 실을 떠서 만들고, 가죽옷은 옷깃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근원을 다스려 흐름을 거두어들이고 중요한 것을 들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시주편》, 《창힐편》, 《범장편》의 난잡하고 법도가 없는 체례와는 도리를 셈할 수 없다. (「分別部居, 不相雜廁」, 謂分別爲五百四十部也. 周之字書, 漢時存者《史籀》十五篇, 其體式大約同後代《三倉》. ……其體例皆雜取需用之字, 以文理編成有韻之句, 與後世《千字文》無異, 所謂雜廁也. 識字者略識其字, 而其形或譌, 其音義皆有所未諦. 雖有楊雄之《倉頡訓纂》, 杜林之《倉頡訓纂》, 《倉頡故》, 而散而釋之, 隨字敷演, 不得字形之本始, 字音字義之所以然. 許君以爲音生於義, 義著於形. 聖人之造字, 有義以有音, 有音以有形. 學者之識字, 必審形以知音, 審音以知義. 聖人造字實自像形始, 故合所有之字, 分別其部爲五百四十. 每部各建一首, 而同首者則曰, 「凡某之屬皆從某」, 於是形立而音義易明. 凡字必有所屬之首, 五百四十字, 可以統攝天下古今之字. 此前古未有之書, 許君之所獨搆, 若網在綱, 如裘挈領²⁹⁾, 討原以納流, 執要以說詳, 與《史籀篇》, 《倉頡篇》, 《凡將篇》亂雜無章之體例不可以道里計.)³⁰⁾

당시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익히기 위해 편찬된 일부 童蒙書는 단지 「따로 풀이를 하고 글자에 따라 설명을 하는(散而釋之, 隨字敷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여 「근원을 다스려 흐름을 거두어들이고 중요한 것을 들어 상세히 설명하는(討原以納流, 執要以說詳)」 《說文》에는 비할 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許慎은 字形을 통해 字音과 字義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으며 이를 위해 모든 字形을 총괄할 수 있는 部首를 창안한 것이다. 段注는 이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어떠한 字書도 이러한 업적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여겼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록 部首와 유사한 체례를 가지고 있어도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29) 「그물은 여러 가닥의 실을 떠서 만들어 풀어지기 쉬우나 한 가닥의 벼리로 위쪽 코를 꿰매면 조금도 흩어지지 않는다(若網在綱有條不紊)」는 《書經》에 보이는 구절이며, 「가죽옷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옷깃을 들어야 한다(振裘挈領)」는 漢代 楊倫의 《上書案坐任嘉舉主罪》에 보이는 구절이다. 이는 모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을 파악해야 됨을 비유하는 것으로 문자의 체계적인 정리에 있어 部首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30)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二十二.

있다.

사유의 《급취편》에서도 「부류를 나누어 세우고 글자를 배열하여 서로 혼란스럽게 섞이게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것은 성명, 의복, 음식, 용기 등이 하나의 부류가 되는 것으로 《급취》편의 체례는 이와 같다. 이사, 호무경, 조고, 사마상여, 양웅이 펴낸 여러 편의 책은 산란하고 기강이 없는 까닭에 스스로 말하기를 「기서인 급취편은 다른 자서들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혼고에 기대지 않는 것이 없고, 혼고의 법도 또한 자형에 근거하여 부류를 모으는 것 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동일하게 부류를 나누어 세우고 글자를 배열했으나 그 효용은 같지 않다. (按史游《急就篇》亦曰, 「分別部居不雜廁」. 而其所謂分別者, 如姓名爲一部, 衣服爲一部, 飲食爲一部, 器用爲一部. 《急就》之例如是, 勝於李斯, 胡毋敬, 趙高, 司馬相如, 楊雄所作諸篇散無友紀者, 故自述曰「急就奇觚與衆異」也. 然不無待於訓詁, 訓詁之法又莫若據形類聚. 故同一分別部居而功用殊矣.)³¹⁾

이처럼 《急就篇》의 부류라는 것은 마치 訓詁書인 《爾雅》와 같이 字義에 따라 유사한 종류별로 분류한 것으로 字形에 따른 部首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段注의 주요한 성과는 《說文》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문자학 이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더해 상세한 해설을 첨가한 것이다. 部首에 관한 내용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각 항목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첨가하였다.

부수의 배열은 一부를 처음 시작으로 같은 종류의 것을 모아 사물을 동일한 무리의 것으로 나누었다. 같은 조목이면 모아서 소속시키고 하나의 이치이면 서로 꿰어놓았다. 문자의 배열이 복잡한 것 같으나 넘어섬이 없이 자형에 의거하여 묶어놓았다. 이를 연장하여 펼쳐 만물의 근원을 헤아릴 수 있다. 부수의 마지막은 亥부로 맺어 변화의 무궁함을 알게 하였다. (其建首也, 立一爲端. 方以類聚, 物以群分. 同條牽屬, 共理相貫³²⁾. 雜而不越, 據形系聯³³⁾. 引而申之³⁴⁾, 以究萬

31)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二十三.

32)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下, 一. 「같은 조목과 하나의 이치라는 것은 540부를 서로 연결하여 엮는다는 것이다. (同條共理, 謂五百四十部相聯綴也.)」

33)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下, 一. 「묶는다는 것은 매단다는 것이고, 관련된다는 것은 이어진다는 것이다. 540부의 배열 순서는 대략 자형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차례를 삼아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여 검색하게 하였다. ……부수의 배열은 자형을 순서로 하여

原. 畢終於亥, 知化窮冥.)³⁵⁾

許慎이 제시한 ‘據形系聯’ 이라는 部首의 배열 원칙에 따라 段注는 이를 조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字形의 유사함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동일한 部首 내에서의 같은 屬性의 문자 배열이라는 원칙을 새롭게 발견하여 추가하였다.³⁶⁾

V. 六書論

六書는 한자가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과정을 밝힌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許慎이 《說文·敘》에서 언급한 六書論은 그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며 제시한 例字의 수량 또한 부족하여 이후 적지 않은 이견을 불러왔다. 따라서 段玉裁는 《說文注》에서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許慎 스스로가 《說文》의 효용에 대해 「모든 사물을 다스리고 잘못을 풀어헤쳐 배우는 이들을 깨우쳐 신비한 뜻에 통달하게 한다(將以理群類, 解謬誤, 曉學者, 達神指.)」³⁷⁾ 라 말한 것에 대해 段注는 「신비한 뜻이라 함은 지사, 상형, 형성, 회의, 전주, 가차의 신묘한 뜻을 말한다(神指者, 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神妙之指也.)」³⁸⁾ 라 하였다. 이처

육서의 시작은 상형이 된다. 부수 가운데서는 자의를 차례로 하여 육서의 귀결은 전주이다. (系者, 縣也. 聯者, 連也. 謂五百四十部次第, 大略以形相連次, 使人記憶易檢尋. ……部首以形爲次, 以六書始於象形也. 每部中以義爲次, 以六書歸於轉注也.)」 이는 部首의 배열순서는 字形의 유사함을 기준으로 삼으며, 동일한 部首 안에서는 字義의 유사함으로 순서를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字形과 字義의 기준을 六書의 象形과 轉注를 들어 비유한 것이다.

34) 段玉裁 《說文注》, 卷十五下, 二. 「처음 일부의 자형부터 마지막 540부의 자형에 이르도록 길게 늘어놓는 것이다. (謂由一形引之至五百四十形也.)」

35) 許慎 《說文》, 卷十五下, 一.

36) 段玉裁 《說文注》, 卷一上, 二. 「부수의 선후는 자형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차례를 삼으며, 매 부수에서의 문자의 선후는 자의가 서로 상관된 것으로 차례를 삼았다. (凡部之先後, 以形之相近爲次. 凡每部中字之先後, 以義之相引爲次.)」

37) 許慎 《說文》, 卷十五上, 二十二.

38) 段玉裁 《說文注》, 卷十五上, 二十二.

럼 段玉裁는 六書가 《說文》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핵심 이론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먼저 六書에 대해 字形, 字音, 字義의 집합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六書의 각 항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육서는 문자, 성운, 의리를 모두 담아놓은 것이다. 지사, 상형, 형성, 회의로써 자형을 다하게 되며 문자는 각각의 소리가 있어 자음도 여기서 다하게 된다. 또한 전주와 가차가 있어 자의 역시 여기서 다하게 된다. ……육서 모두를 창힐이 문자를 만든 여섯 가지 법칙이라 말하게 되면 전주는 대부분 통하지 않게 된다. 대진이 이르기까지 지사, 상형, 형성, 회의 네 가지는 문자의 조자법이고 전주와 가차 두 가지는 문자의 활용법이라 하였으니 성인이 다시 나타난다 하여도 이러한 주장을 바꿀 수 없다. (六書者, 文字, 聲音, 義理之總匯也. 有指事, 象形, 形聲, 會意, 而字形盡於此矣. 字各有音, 而聲音盡於此矣. 有轉注假借, 而字義盡於此矣. ……謂六書爲倉頡造字六法, 說轉注多不可通. 戴先生曰, 指事, 象形, 形聲, 會意四者, 字之體也. 轉注, 假借二者, 字之用也. 聖人復起, 不易斯言矣.)³⁹⁾

六書는 문자의 形音義를 해석하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字形은 象形, 指事, 會意, 形聲을 통해 풀이가 가능하고, 모든 문자는 字音이 있으므로 문자의 발음 역시 이러한 四書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轉注와 假借를 통해 문자의 義理 역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段玉裁는 그의 스승인 戴震의 四體二用說을 충실히 따라 轉注와 假借를 앞선 네 개의 기본 造字法과 완전히 분리하였다. 하지만 문자의 條例⁴⁰⁾라는 관점에서는 六書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⁴¹⁾ 종합하면 段玉裁는 六書를 造字法과 用字法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 여기고 있으나 문자의 조목을 밝히는 條例에는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즉 段玉裁는 造字와 用字 그리고 條例의 개념을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육서의 순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39)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四.

40) 許慎《說文》, 卷十五上, 二十. 「이러한 지식이 부족한 선비나 미천한 필부들은 ……문자에 대한 조례는 본 적도 없다. (俗儒鄙夫, ……未嘗觀字例之條.)」

41)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二十. 「문자의 조례라는 것은 지사, 상형, 형성, 회의, 전주, 가차의 육서를 이른다. (字例之條, 謂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六書也.)」

육서의 순서에 대해 정중이 말한 상형, 회의, 전주, 처사, 가차, 해성은 그 차례가 맞지 않으며, 유희와 반고의 상형, 상사, 상의, 상성, 전주, 가차는 허신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유희와 반고, 허신의 주장을 합쳐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대개 지사와 상형이 있는 후에 회의와 형성이 생기게 되어 이들 네 가지는 조자의 기본이 되었고, 이후 전주와 가차는 문자의 활용법이 되었다. 대진이 말한 육서의 순서는 자연스러운 것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맞는 것이다. 학자들이 전주를 알지 못하니 가차 또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다. (六書之次第, 鄭衆一象形, 二會意, 三轉注, 四處事, 五假借, 六諧聲, 所言非其敘. 劉歆, 班固一象形, 二象事, 三象意, 四象聲, 五轉注, 六假借, 與許大同小異. 要以劉, 班, 許所說爲得其傳. 蓋有指事, 象形而後有會意, 形聲, 有是四者爲體, 而後有轉注, 假借二者爲用. 戴先生曰, 六書之次第出於自然, 是也. 學者不知轉注, 則亦不知假借爲何用矣.)⁴²⁾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六書의 명칭과 순서는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로 이는 班固의 순서와 許慎의 명칭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段玉裁는 기본적으로 班固의 설을 따르고 있으나 차이점은 許慎과 같이 指事를 六書의 시작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 사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象形을 六書의 처음으로 여기는 일반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문자의 제작 혹은 탄생의 시기 구분은 모든 과정이 반드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象形과 指事의 선후 관계는 일반적 이론의 체계일 뿐 절대 불변의 순서와 규칙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 象形과 指事の 순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段玉裁가 언급한 이와 같은 六書의 명칭과 순서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六書의 내용에 대해 許慎은 먼저 文과 字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각각 象形과 形聲을 언급하였다.⁴³⁾ 그러나 段玉裁는 許慎의 견해에 근거하여 文과 字에 각각 指事와 會意를 포함시켰다.

물류에 의거하여 형상을 그린다는 것은 지사와 상형을 말하는 것으로 지사 역시 상형이다. ……그 후에 文과 文이 서로 합쳐져 형성과 회의가 되니 그것이 바로 字이다. (依類象形謂指事, 象形二者也. 指事亦所以象形也. ……其後文與文相合而

42)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七. 假借 아래.

43) 許慎《說文》, 卷十五上, 二. 「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물류에 의거하여 형상을 그리니 이를 文이라 한다. 그 후에 형성 등이 서로 더해지니 이를 字라고 한다. (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爲形聲，爲會意，謂之字。)44)

六書의 내용을 文과 字로 나누어 獨體字와 合體字의 개념으로 指事와 會意를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許慎에 비해 확실히 진보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六書의 개별적인 정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段玉裁는 許慎의 견해에 근거하여 象形과 指事 모두 獨體字인 文이라 여겼으나 이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첫째, 象形.

독체 상형과 합체 상형이 있다. 독체 상형에는 日月水火 등이 있으며 합체 상형은 어떤 자형에 또 형상이 더해지는 것이다. ……독체 상형은 문자가 되어 읽을 수 있으나 어떤 자형에 들어 있는 것은 문자가 아니어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문자는 절반은 회의이고 절반은 상형으로 한 글자에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회의는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문자가 되므로 이와는 구별된다. (有獨體之象形，有合體之象形。獨體如日月水火是也，合體者，從某而又象其形。……獨體之象形，則成字可讀。附於從某者，不成字不可讀。……此等字半會意半象形，一字中兼有二者。會意則兩體皆成字，故與此別。)45)

段玉裁는 合體象形을 일종의 半會意半象形으로 여겨 하나의 글자에 두 가지 造字 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合體象形의 구조 중 한 부분은 문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문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것은 바로 기본 象形字에 일종의 符號가 첨가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半會意라는 것은 문자에 부호가 더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는 두 개 이상의 문자 구성 요소가 모두 단독으로 문자가 되는 會意字와 구별되는 것으로 象形과 會意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둘째, 指事.

지사가 상형과 다른 것은 형상은 하나의 사물을 이르는 것이나 지사는 여러 개의 사물을 갖춘 것이다. 오로지 하나의 것과 많은 것이 여기서 나누어져 한편으로는 日月을 예로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上下를 예로 들었다. 上下가 갖추고 있는 사물은 많으며 日月은 단지 하나의 사물만을 나타낸다. 학자들이 이를 알아 지사

44)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二。

45)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四。象形 아래。

와 상형을 구분하게 되었다. 지사 역시 상형이라 칭할 수 있으니사물이 있으면 형상이 있으므로 지사까지 상형이라 말한 것으로 실로 어지러워서는 안 된다. (指事之別於象形者, 形謂一物, 事咳衆物, 專博斯分, 故一舉日月, 一舉上下. 上下所咳之物多, 日月祇一物. 學者知此, 可以得指事, 象形之分矣. 指事亦得稱象形,有事則有形, 故指事皆得曰象形, 而其實不能溷.)⁴⁶⁾

여기서 ‘形謂一物’ 이라는 것은 묘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사물을 직접 문자로써 기록한다는 것으로 상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所咳之物多’ 라는 것은 여러 개의 사물을 개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것으로 지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段注는 ‘專’과 ‘博’의 개념으로 상형과 지사를 구별하였다. 즉 상형은 日, 月과 같이 각각의 한 가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專’이라 하였고, 지사는 上, 下와 같이 여러 개의 사물을 아우르는 개념을 개괄하는 것으로 여겨 ‘博’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형의 특징은 특정 대상의 圖畫的 요소이며 지사는 여러 개념의 符號的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許慎의 상형과 지사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會意.

모은다는 것은 합치는 것으로 두 자형의 의미를 합치는 것이다. 하나의 자형으로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에 부족하여 반드시 두 자형의 의미를 합쳐 문자를 이루는 것이다. 회의라는 것은 뜻을 합친다는 것이다. (會者, 合也, 合二體之意也. 一體不足以見其義, 故必合二體之意以成字.會意者, 合誼之謂也.)⁴⁷⁾

이처럼 段注에서는 會意가 두 개의 자형이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므로 객관 사물에 대한 개괄 능력이 더욱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 살펴본 象形, 指事, 會意가 주로 문자의 表意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形聲은 문자의 表音성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形聲.

이러한 문자는 절반은 의미를 주관하고 절반은 소리를 주관한다. 의미를 주관하는 절반은 그 의미를 취하여 자형을 이루고, 소리를 주관하는 절반은 그 소리를 취하여 자형을 이룬다.일을 이름으로 삼는다는 것은 절반의 의미를 말하고,

46)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四. 指事 아래.

47)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五. 會意 아래.

소리의 유사함을 취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은 절반의 소리를 말한다. ……이것이 지사나 상형과 다른 것은 지사와 상형은 독체지만 형성은 합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회의와 다른 것은 회의는 자형이 더해져 의미를 주관하나 형성은 자형이 더해져 소리를 주관하게 된다. 성부는 혹 좌우상하 그리고 속과 밖에 있으며 하나의 문자에 두 개의 성부가 있기도 하다. 亦聲은 회의이면서 형성을 겸하는 것이다. 또한 省聲은 회의가 아니지만 성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성부가 되는 어떤 문자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其字半主義, 半主聲. 半主義者, 取其義而形之. 半主聲者, 取其聲而形之. ……以事爲名謂半意也, 取譬相成謂半聲也. ……其別於指事象形者, 指事象形獨體, 形聲合體. 其別於會意者, 會意合體主義, 形聲合體主聲. 聲或在左, 或在右, 或在上, 或在下, 或在中, 或在外. 亦有一字二聲者. 有亦聲者, 會意而兼形聲也. 有省聲者, 既非會意又不得其聲, 則知其省某字爲之聲也.)⁴⁸⁾

段注는 먼저 形聲과 會意의 차이점을 밝힌 후에 形聲字의 聲符의 위치 그리고 亦聲과 省聲 등 形聲字의 변형된 형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形聲字의 聲符의 작용과 활용을 통하여 表意에서 表音으로의 문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段注에서는 象形, 指事, 會意, 形聲의 네 개의 기본 造字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각 항목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였다. 다음으로 경우에 따라 보조 造字法 혹은 활용법이라 여겨지는 轉注와 假借는 六書 가운데 역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많이 나뉘는 항목이다. 段玉裁는 우선 기본적으로 許慎의 이론 위에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상세히 제시하였다.⁴⁹⁾ 다섯째, 轉注.

같은 부류가 되는 하나의 표준을 세운다는 것은 그 의미의 부류를 나누어 세우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爾雅·釋詁》편의 첫 째 항목인 ‘始’가 바로 그러하다. 같은 뜻을 서로 주고받는다든 것은 무려 여러 글자의 뜻이 대략 같아서 의미를 서로 주어서 하나의 표준으로 귀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初, 哉, 首, 基, 肇, 祖, 元, 胎, 俶, 落, 權, 輿 등은 그 의미가 혹은 가깝고 혹은 멀지만 모두 서로 풀이하기를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하다. (建類一首, 謂分立其

48)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五. 形聲 아래.

49) 段玉裁《說文注》, 卷十五上, 四. 「같은 의미의 여러 글자가 있는 것이 전주이고 한 글자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것이 가차이다. 전주가 있어 여러 문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가차가 있어 하나의 문자가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異字同義曰轉注, 異義同字曰假借. 有轉注而百字可一義也, 有假借而一字可數義也.)」

義之類而一其首，如《爾雅·釋詁》第一條說始是也。同意相受，謂無慮諸字意指略同，義可互受相灌注而歸於一首，如初哉首基肇祖元胎俶落權輿，其於義或近或遠，皆可互相訓釋而同謂之始是也。)⁵⁰⁾

轉注에 관해 戴震은 이를 訓詁學의 개념인 互訓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 段玉裁는 이를 계승하면서 그 범위를 같은 部首로 제한하여 轉注를 同部互訓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轉注에 관한 학설은 너무나 분분하여 段注 내용의 최종 수용 여부는 판단을 보류하기로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段玉裁의 주장은 여러 轉注說 가운데 설득력 있는 하나의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섯째, 假借.

무릇 사물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어 여기에 기댈 수 있는 문자를 얻으니 한대 사람들이 말하는 현령의 令과 長이다. 만호 이상을 다스리는 것이 令이고 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長이다. 令의 본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長의 본의는 멀고 오래된 것이다. 현령과 현장은 본래 해당하는 문자가 없어 명령을 내리다와 멀고 오래되었다는 것에서 인신되고 뜻이 돌아 이루어졌으니 바로 이것이 가차이다. 허신이 예로 든 令과 長은 지금의 것으로 옛 것을 통해보면 바로 한대의 현령과 현장을 나타내는 글자를 말한다. (凡事物之無字者皆得有所寄而有字，如漢人謂縣令曰令長。縣萬戶以上爲令，減萬戶爲長。令之本義發號也，長之本義久遠也。縣令縣長，本無字，而由發號久遠之義，引申展轉而爲之，是謂假借。許獨舉令長二字者，以今通古，謂如今漢之縣令縣長字即是也。)⁵¹⁾

許慎이 《說文》에서 假借를 설명하며 예로 든 令과 長은 引伸義를 假借로 오인한 대표적 경우이다. 段玉裁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소위 引伸假借⁵²⁾라 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假借는 引伸과 같은 本義의 확대가 아닌 音韻 관계만을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이와는 반대로 引伸은 의미의 상관 여부를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곧 本義가 다른 뜻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許慎이 假借를 설명하며 말한 '依聲託事'(소리에 기대어 뜻을 표현함) 현상과는 같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引伸 관계를 假借라 여길 수 없으며 당연히 引伸假借의 개념 역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段玉裁는

50)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五。轉注 아래.

51)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七。假借 아래.

52) 段玉裁《說文注》，卷二上，三十九。止 아래에도 「引伸假借之法」이라는 注文이 보인다.

許慎의 문자 풀이 술어인 ‘以爲’를 가지고 假借를 설명하였다. 이는 곧 ‘以爲’를 許慎이 假借를 풀이한 「本無其字，依聲託事」의 술어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본래 가차는 고문에서 문자가 없을 때 넣었던 것이다. 허신의 자서에서 以爲라 한 것과 古文以爲라 한 것을 모두 모아서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사용한다는 것으로 능히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以라 하였다. 무릇 以爲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사용하여 이것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來는 주왕조가 하늘로부터 받은 상서로운 보리로 ‘보내준 것’이라는 의미의 來가 되었다. (原夫假借放於古文本無其字之時，許書有言以爲者，有言古文以爲者，皆可薈萃舉之。以者，用也，能左右之曰以。凡言以爲者，用彼爲此也。如來，周所受瑞麥來麴也，而以爲行來之來。)53)

여기서 제시한 來의 예는 바로 《說文》54)에서 許慎이 언급한 것으로 ‘來’의 本義는 ‘보리’로써 후에 생긴 ‘오다’의 의미가 바로 假借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說文》에 보이는 ‘以爲’ 혹은 ‘古文以爲’를 바로 假借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假借만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닌 引伸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용례에 따라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段注에서 이것을 문자를 운용하는 假借의 일종이라 주장한 것은 옳지 않다. 다음은 假借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대체로 가차의 시작은 본래 해당하는 문자가 없을 때 비롯되었으나 나중에는 이미 문자가 있음에도 가차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는 후대의 잘못된 문자 역시 스스로를 가차라 덮어 씌웠다. 고금의 사례를 모두 모으면 이와 같은 세 가지 변화가 있다. 허신의 자서로 말하자면 본래 難易 두 글자가 없으나 難鳥, 蜥易의 문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글자는 없으나 소리에 의탁한다는 것이다. (大氏假借之始，始於本無其字。及其後也，既有其字矣，而多爲假借。又其後也，且至後代譌字亦得自冒於假借。博綜古今，有此三變。以許書言之，本無難易二字，而以難鳥，蜥易之字爲之，此所謂無字依聲者也。)55)

段玉裁는 이처럼 假借 현상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먼저 假借가 발생할 당시 본래 해당하는 문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이

53)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七。

54) 許慎《說文》，卷五下，三十二。

55) 段玉裁《說文注》，卷十五上，八。

것이 바로 許慎이 말한 「本無其字, 依聲托事」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다음은 역시 假借가 발생할 당시 해당하는 문자가 없었으나 이후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마지막은 후대에 만들어진 譌字가 正字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本字가 없는 假借만 있었으나 후에 本字가 있는 假借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譌字 역시 假借의 역할을 가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段玉裁의 假借三變說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사물을 소리에 의탁하는 '依聲托事'의 假借는 앞서 살펴 본 形聲과 더불어 漢字가 가지고 있는 表音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이처럼 段玉裁는 《說文注》를 통한 문자 해석에 있어 단순히 字形만을 살피는 것이 아닌 音韻과의 연계성을 항상 고려했다. 즉 形音義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연관성을 전제로 문자를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六書에 대한 段注의 단점으로는 本無其字와 本有其字의 假借와 引伸 등을 혼용한 것과 轉注를 互訓 현상으로 보아 訓詁學과 文字學 영역에 속하는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VI. 結論

許慎의 《說文》이 후세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段玉裁의 상세한 注釋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許慎의 小篆 자형의 해설 아래 더해진 注文의 내용을 참고할 뿐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許慎의 《說文·敘》는 그의 文字觀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한 편의 문자학 이론서로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문자학의 각 영역을 연구할 때면 관례처럼 敘文의 내용을 인용해 왔다. 이에 비해 《說文·敘》에 대한 段注에 대해서는 지

56) 段玉裁 《六書音韻表》, 表三. 「과거 육서의 가차는 자음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동음자로 서로 대체하는 것이며, 전주는 자의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동의자로 호환하는 것이다. ……전주는 같은 의미의 다른 글자들이며, 가차는 다른 의미의 같은 글자들로써 그 원류는 모두 음운에 있다. (古六書假借以音爲主, 同音相代也. 轉注以義爲主, 同義互訓也. ……轉注異字同義. 假借異義同字, 其源皆在音韻.)」(《說文解字注》天工書局 수록.)

금까지 그 속에 담겨있는 段玉裁의 문자학을 포함한 언어학 이론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즉 《說文·敍》가 許慎의 문자학 이론의 精髓라면 이에 대한 段注 역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說文·敍》에 대한 段注의 문자학 이론을 고찰해 보았다. 段注의 내용을 종합하면 段玉裁는 漢字의 기원과 文字의 개념,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形音義의 세 가지 요소, 그리고 部首와 六書 이론 등에 관해 상세한 분석과 더불어 자신의 문자학 이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說文》 古文을 大篆 이전의 문자로 오인하거나 六書 중 假借를 引伸과 혼용한 것 등은 분명한 오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注文의 내용으로 인해 전체 段注의 업적이 빛을 바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許慎이 敍文에서 그의 문자학 이론을 밝힌 바와 같이 段玉裁 역시 《說文·敍》의 注文을 통해 그의 다양한 문자학 이론을 드러냈다. 이는 한편으로 清代 說文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段玉裁는 許慎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객관적 분석가이다. 충실히 許慎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때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술 이론을 첨가하였다. 따라서 《說文·敍》가 담고 있는 문자학 이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段注 역시 절대로 결여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參考文獻】

- 許慎著, 段玉裁注《說文解字注》, 臺北: 書銘出版公司, 1992.
 許慎著, 段玉裁注《說文解字注》, 臺北: 天工書局, 1992.
 呂景先, 《說文段註指例》, 臺北: 正中書局, 1992.
 李孝定, 《讀說文記》,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92.
 章季濤, 《怎樣學習《說文解字》》, 臺北: 群玉堂出版公司, 1992.
 蔡信發, 《說文答問》, 臺北: 國文天地, 1993.
 向 夏, 《說文解字敍講疏》, 臺北: 書林出版社, 1993.
 余國慶, 《說文學導論》,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5.
 余行達, 《說文段注研究》, 成都: 巴蜀書社, 1998.
 張其昀, 《說文學源流考略》,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8.
 吳濟仲, 〈清代的《說文解字》古文 연구에 관한 考察〉, 《中國言語研究》第33輯,

2010.

【中文提要】

《說文解字》是中國第一部具有理論體系的字書，也是文字學研究書。古代學者常常借敘，表明自己的創作動機及學術理論等。許慎也不例外，在《說文解字·叙》中都包含着他的各種文字學精髓。段玉裁是清代說文四大家之一，也是當時最著名的說文學大家。他的代表著作就是《說文解字注》，有了它可以極大提高《說文解字》的價值，可以說是研究《說文解字》的一部權威性著作。段玉裁在《說文解字·叙》的注文中，更詳細地表明了許慎的文字學觀點。全面反映了漢字的各種特徵，如漢字的起源和文字的概念、漢字形音義之間的關係和字形的收錄、部首的體例、還有六書論等，真正從語言學的角度闡述文字學理論。尤其是將漢字的形音義三者融合起來，建立了其三位一體的理論。完善和發展了古代文字學的研究成果，在文字學領域中的各種項目都提過，於是許慎的《說文解字·叙》和段玉裁的注文，可以稱爲一部專門文字學理論著作。

【主題語】

清代 許慎 段玉裁 說文解字 說文解字注

투고일: 2014. 4. 15 / 심사일: 2014. 4. 20~5. 5 / 게재확정일: 2014. 5. 10